

# 전주시의 중심 지역과 지리적 범위 변화 과정\*

조성욱\*\*

## Process of Change in the Central Region and Geographic Range of Jeonju City\*

Sungwook Cho\*\*

**요약 :** 이 연구에서는 전주시의 발전 과정을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중심 지역과 지리적 범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봤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전주의 중심 지역은 마한 및 백제시대에 은송리 지역에서 시작하여, 인구 증가와 함께 노송동 구릉 지역으로 이전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전주읍성 지역이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하였고, 후백제의 도읍이 되면서 노송동 지역에 견훤도성이 축조되었다. 후백제 멸망 이후 다시 평탄지인 전주읍성 지역으로 중심 지역이 이전되었고 이곳에 1388년 전주부성이 축조되었으며, 조선시대까지 중심 지역이 유지되었다. 1907년 전주 읍성이 해체되었지만, 중심 지역으로서의 역할은 1980년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는 다핵심도시로 변화했다. 둘째, 전주의 지리적 범위는 조선시대까지 동쪽으로는 노송동 구릉 지역, 서쪽으로는 전주천 유역, 북쪽으로는 모래내, 남쪽으로는 기린봉과 승암산의 지리적 범위였다. 그러나 1940년대에 북쪽과 서쪽으로 확대되었고, 1957년에 지리적 범위가 급격하게 확장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전주천을 따라 북서쪽으로 확대되던 발전 방향이 동서 방향의 구릉지 개발로 횡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에는 그동안 전주의 외곽 경계로 인식되었던 삼천과 황방산을 넘어, 동쪽은 소양천, 서쪽은 천잠산, 남쪽은 모악산, 북쪽은 만경강으로 확장되었다.

**주요어 :** 중심 지역, 지리적 범위, 노송동, 견훤도성, 전주읍성, 전주천, 만경강

**Abstract :**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Jeonju City w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and examined the change of the central region and expanding the geographic range. To summarize this study, First, the change of the central region in the Jeonju area expanded from Eunsong-ri to Nosong-dong in the Mahan and Baekje periods, along with population growth.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flatland area grew into a new center and Gyeonwhon Castle was built in the Nosong-dong area as it became the capital of Later-Baekje. After the fall of Later-Baekje, the regional center moved back to the flatland, the Jeonju Walled Town was built in 1388, and the central region was maintained to the Joseon Dynasty. Jeonju Walled Town was disbanded in 1907, but its role as a regional center continued until 1980, and later it became a multi-core city. Second, the geographic range of Jeonju to the Joseon Dynasty was Nosong-dong hilly area to the east, Jeonju Stream basin to the west, Moraenae Stream to the north, and Girin Mountain and Seungam Mountain to the south. However, it expanded north and west in the 1940s, its geographical range expanded sharply in 1957, and in the 1980s has expanded from northwest along Jeonju Stream to hilly areas in the east-west directions. After the 2000s, it went beyond Samcheon and Hwangbang Mountain, which were recognized as the outer borders of Jeonju. The present boundaries are Soyang Stream in the east, Chonjam Mountain in the west, Moak Mountain in the south, and Mangyeong River in the north.  
**Key Words :** Central region, Geographic range, Nosong-dong, Gyeonwhon Castle, Jeonju Walled Town, Jeonju Stream, Mangyeong River

\*이 논문은 2026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w@jbnu.ac.kr)

## I. 서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는 마한과 백제시대에도 사람들이 거주했었지만, 기록에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전북 범위의 지역 중심지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672년 군사기관인 완산주서(完山州誓)와 685년 행정기관인 완산주(完山州)가 설치된 이후이며(최범호, 2016),<sup>1)</sup> 757년 완산(完山)에서 전주(全州)로 개칭되었다. 이후 900년 후백제의 수도가 되었고, 고려시대(성종, 12목)인 983년 전주목이 되었으며, 1018년에는 전라주도(강남도+해양도)가 되면서 전라남북도를 관할하는 행정중심지가 되었고, 1388년에 전주 읍성이 축성되었다. 조선시대 때는 조선왕실의 본향으로서 태조어진을 모시는 경기전 등으로 도시의 위상이 상승했다. 이러한 전주의 성장과 함께 전주 지역 내부에서는 시대에 따라 중심 지역의 변화가 있었으며, 지리적 범위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 조건인 전주천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전주의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경찬(2004)과 김주성(2006) 그리고 전주역사박물관(2015) 등의 연구가 있다. 먼저 이경찬(2004)은 4개 시기로 구분하여 거주지와 성곽 변화를 중심으로 전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즉, 삼국시대(백제)에는 노송동 구릉 지역을 중심으로 나성이 없는 단독산성 형태 시기, 통일신라시대에는 시가지가 구릉지에 경작지는 평탄지에 있었던 시기, 견훤 시대에는 구릉지에 산성과 나성이 축조된 다중위곽식 성곽시기,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산성 중심에서 읍성 중심으로 전이된 시기로 보고 있다.

김주성(2006)은 마한 시기에서 후백제의 견훤 시기까지를 4개 시기로 구분하고(철기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견훤시대) 각 시기의 역사적 특징과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발행한 「꽃심을 지닌 땅 전주」(2015)에서는 고대(구석기~통일신라시대), 중세(후백제, 고려), 근세(조선), 근대(동학농민혁명~일제강점기)의 4개 시기로 구분하여, 주로 역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즉, 이경찬(2004)

의 연구는 토지이용 변화를 중심으로, 김주성(2006)의 연구는 역사적인 유적과 종교를 중심으로, 전주역사박물관(2015)의 연구는 역사적 변화 측면을 중심으로 전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주시의 발전 과정을 지역 내에서의 중심 지역 이동을 중심으로 백제 ~ 통일신라 ~ 후백제 시기, 고려 ~ 조선 시기, 1907년 ~ 현재의 3개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중심 지역과 지리적 범위 변화 등 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 지역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와 부분,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시기별 전주시 발전 과정과 특징

고대부터 현재까지 전주의 발전 과정을 지방행정 중심지에서 후백제의 수도로 발전했던 시기(마한 ~ 백제시대 ~ 통일신라시대 ~ 후백제시대), 전북의 지역 범위에서 전라도의 중심지로 확대되고 조선 왕실의 본향으로 발전했던 시기(고려시대 ~ 조선시대), 전주 읍성의 해체와 지리적인 범위가 확장되었던 시기(1907년 ~ 현재) 등 3개 시기로 대분류하고, 이를 7개 시기로 세분류하여 각 시기별 중심 지역과 지리적 범위 확대를 중심으로 전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의 중심 지역은 행정 및 상업 기능과 주거 밀집 지역, 지리적 범위는 행정구역 변화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지리적 인식 범위를 준거로 한다.

### 1. 지방행정 중심지에서 후백제의 수도로 (마한~후백제 시대)

1) 마한~백제시대(BC 3세기~660년): 완산 시대  
전주의 원래 지명은 완산(完山)이었으나, 통일신라시대인 757년 9주 소재지의 지명을 변경(한자화)하면서 전

표 1. 이규보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에 나타나는 '중자산'과 '완산'에 대한 기록

원문 : [有中子山者,最蔚鬱,州之雄鎮也.其所謂完山者,特一短峯耳,異哉.一州之以此得號也.]

해석 : 중자산(中子山), 현 승암산으로 추정)이라는 산이 가장 웅장하니, 고을에서 제일 큰 진산(鎭山)이다. 완산(完山)이라는 산은 나지막한 봉우리에 불과할 뿐인데, 고을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은 참 이상하다.

출처 : 東國李相國集(제23권), 南行月日記, 한국고전종합DB.

주(全州)가 되었다. 전주의 원래 지명인 ‘완산’은 전주천 남부에 존재하는 산 이름에서 유래한 것인데(최고봉은 장군봉, 185m), 고려시대 이규보(1168~1241)는 완산을 작은 산이라고 묘사했지만(표 1), 전주의 시작은 이 완산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완산(完山, 185m)은 전주천의 남쪽에 위치하는데 내칠봉, 외칠봉 등 많은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지이며(일명 완산칠봉), 고덕산-남고산-(장승백이)-완산-(용머리 고개)-다가산-서산으로 이어지는 전주천 남쪽 산줄기의 일부이다. 완산의 북쪽 사면과 전주천 사이에는 평탄지가 존재하는데(은송리와 곤지리, 현 완산초 일대), 동쪽에는 곤지산(초록바위), 서쪽에는 다가산이 위치한다. 북쪽의 전주천이 범람해도 뒤의 완산으로 피난이 가능하고, 약수터가 존재하는 등 식수 걱정이 없으며, 곤지산의 산자락이 전주천을 막아주기 때문에 물의 속도가 느려져서 비교적 안전하여, 비록 터는 작지만 부족 단위의 거주 지역으로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은송리 지역은 초기 전주의 시작 지점으로서 의미를 지니는데, 이 시기를 은송리 시대(또는 완산 시대)로 명명할 수 있으며, 마한에서 백제시대(BC 3세기~660년)까지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기 은송리 이외에도 부족 단위의 인간 거주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자만동이 있다. 자만동(옥류동)은 은송리에서 동쪽으로 전주천 건너에 위치하는데(직선거리는 약 1.5km), 배후(북쪽)가 산지(발산, 139.8m)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으로는 전주천이 흐르고 있어서, 전주천이 범람한다고 하여도 뒷산

으로 피난이 가능한 위치이다. 그리고 쌍시암이라는 우물이 존재하고, 옥류동 고개를 통해서 청수정 및 승암산 산지와도 쉽게 연결된다. 그러나 은송리가 북향인 반면 자만동은 남향으로 위치해 있어서 인간 거주에 더 유리한 지역이지만, 자만동 역시 터가 작아서, 많은 인구가 거주하기는 어렵다. 전주이씨의 발상지인 자만동 일대는 건원도성의 돈대로 추정되는 오목대가 있으며, 전주천 변에는 한벽당의 암석 지형이 있어 하천 범람의 영향권을 벗어나 있다. 이와 같이 전주 지역의 초기 정착민은 은송리와 자만동과 같이 전주천변이지만 전주천의 범람으로부터 안전하고 음용수가 있으며, 작은 규모이지만 평탄지가 존재하고, 배후산지가 있는 터에 정착하면서 서서히 전주의 평탄 지역으로 경작지를 확장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송천과 인봉천에 의해서 농업활동이 가능한 노송동의 구릉지역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노송동은 전주천의 범람으로부터는 완전하게 안전하고, 노송천과 인봉천 등 통제 가능한 작은 하천을 이용하여 농업 활동이 가능하며, 은송리와 자만동에 비해서 터가 커서 더 큰 인간 집단의 거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초기 발농사 중심 사회에서 소규모 하천인 노송천과 인봉천의 물을 이용할 수 있고, 기린봉과 승암산의 임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등 더 큰 규모의 인간 거주에 적합한 농업 조건과 주거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노송동의 구릉지는 동고서저형을 이루기 때문에 하천의 흐름은 서쪽으로 흐르며, 노송천은 노송동 구릉지와 전주읍성 평탄지의 경계를 이룬다(그림 1).



그림 1. 마한~백제시대 전주 지역의 중심지 변화(은송리~노송동)

이상과 같이 초기 전주 지역 정착민들은 은송리와 자만동에 거주하면서, 전주천변의 평탄지를 부분적으로 경작지로 이용하면서 생활했을 것이다. 그리고 백제는 538년(성왕) 부여로 도읍지를 이전한 이후, 부여 - 논산(동방성) - 전주(완산) - 남원 - 운봉 - 함양 - 합천의 대야성 방면으로 진출했다(김근영, 2018).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주의 남고산과 승암산 사이의 좁은목(노루목)을 반드시 지나야 하기 때문에 전주는 당시에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을 것이다. 즉, 남원 방향으로 가는 길은 현재의 덕진 - 오목대 - 좁은목 노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통일신라시대(668년~900년): 전북 지역의 지방행정 중심지

전주는 삼국통일이라는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백제 시대 중방(고부)을 대체하는 신도시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거주민과 함께 외부에서 유입된 군인과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인 685년 완산주가 설치되어 전북지역 범위의 행정중심지가 되면서, 인구 증가에 따라 더 많은 경작지가 필요했고, 홍수 때에 물이 범람하는 범람원 지역인 전주천 주변 지역을 개척하면서 전주 읍성의 평탄지(중앙동과 풍남동 일대) 지역으로 확장해 갔을 것이다.

이 시기에 방리구획(坊里區劃)이 실시되었는데, 방리구획 설정의 목적은 군사들을 위한 둔전이나 신개척지를

위한 것이다(이경찬, 2004). 방리구획이 실시된 지역은 기존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전주천 이남의 은송리 지역이나 동쪽 구릉지인 노송동 지역이 아니라, 미개척지인 전주 읍성의 평탄지를 중심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방리구획 지역은 초기에는 농경지와 둔전 개발을 위한 전지구획(田地區劃)으로 실시되었는데, 이후 거주인구의 증가로 시가구획(市街區劃)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이경찬, 2004).

이로써 은송리와 자만동 그리고 노송동 지역은 원 거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구시가지 지역이 되었고, 개간이 진행되던 평탄 지역은 신도시 지역으로 주로 외부 이주민과 군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다. 즉, 중심 지역이 구릉 지역인 노송동에서 평탄지인 중앙동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삼국통일이 완성된 평시였기 때문에 산성보다는 행정기관과 마을 그리고 경작지가 중심이 되는 평지로 중심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이 이동했을 것이다(그림 2).

## 3) 후백제 시대(900년~936년): 견훤도성과 궁성

900년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가 되면서, 전주는 통일신라시대 지방행정 중심지(9주 5소경)에서 한 나라의 수도로서 정치 및 군사 중심의 도시구조가 요구되었다. 즉, 지방행정 중심지와는 다른 차원의 한 국가의 국방 및 통치 기능을 수행할 도성과 궁성의 축조가 필요했고, 이때 기존 전주읍성 지역의 행정 중심 지역과 거주지를 그대로 두고 비교적 거주인구가 적고 방어상 유리한 동부의 노송



그림 2 통일신라와 후백제시대 전주의 중심지 변화

출처 : 조성욱, 2025b:377.



동 지역과 승암산과 기린봉 산지의 계곡을 연결하여 도성을 구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심지는 통일신라시대의 평탄지에서, 구릉지인 노송동 지역으로 이전되었다.

견훤도성(甄萱都城)의 동쪽은 기린봉에서 북쪽의 고토성(古土城)까지의 산줄기를 따라 성벽을 구축하고, 평탄지와 만나는 서쪽은 북쪽의 고토성과 남쪽의 오목대를 연결하는 성벽을 구축하였으며, 노송천이 서쪽 성벽 밖의 해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토성과 오목대는 규모가 작은 성으로 통일신라시대에 평탄지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이미 축조된 성이었을 가능성도 있다(최흥선, 2016). 당시 노송천은 도성인 견훤성과 행정기관과 거주지가 집중된 평탄지의 경계선이 되었는데(조성욱, 2025a), 도성의 해자로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하천의 흐름을 바꾸었을 가능성도 있다. 견훤도성의 전반적인 지형은 동고서저 지형이고, 뒤(동쪽)는 기린봉 산줄기가 배후를 둘러싸고, 앞쪽(서쪽)에는 노송천과 전주천 그리고 서산이 막아주고 있는 형국이다. 통일신라시대 초기 전주의 지리적 범위는 북쪽으로는 거북바위와 모래내, 서쪽으로는 전주천과 서산, 남쪽으로는 전주천(남대천)과 완산, 동쪽으로는 종광대까지 연결되는 기린봉 산줄기로 볼 수 있다(그림 3).

견훤도성 내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지점은 물왕말 지역(전주교~종광대 사이)과 천주교 전주교구청, 동고산성의 상성, 전주제일고 지역, 인봉저수지가 있었던 문화촌 지역, 풍납초등학교 일대(이경찬, 2024) 그리고 전주 천

부교회 지역 등이다. 그리고 남쪽의 완산이나 서쪽의 서산은 비교적 완만한 산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기에는 자연적 조건이 적합하지 않아, 도성이나 궁성 축조 지점으로 고려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고산성 지역도 천연적인 요새라는 이점이 있지만 내부에 궁성과 행정기능, 군사시설 등의 배치를 위한 터가 좁은 점과 시가지와는 전주천으로 분리되어 있고, 전주읍성 지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동고산성의 상성(上城)은 927년에 재축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전영래, 2001), 방어상으로는 유리한 지점이지만, 시가지 조망이 어려워 통치 지점으로서의 단점이 있다.

궁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고 상징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점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측면에서 전주 천부교회 지역(해발고도 60m, 완산구 인봉1길 37-11)은 도성 내부의 비교적 가운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좌측에 기린봉과 승암산, 우측에는 종광대 및 반촌 지역이 위치하여 좌요우사의 배치가 가능한 지점이며, 동쪽은 기린봉 산줄기에 연결되지만, 서쪽 평탄지와 만나는 지점에서 비교적 해발고도 차이가 있는 절벽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상징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지점이다(조성욱, 2025b). 전주 천부교회 지역을 궁성으로 추정한다면, 남쪽 아래에 위치하는 인봉지는 궁성의 남쪽 정원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시에 천주교 전주교구청의 시설을 거쳐 바로 승암산 계곡을 통해 동고산성의 상성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지점이기도 하다.



그림 3. 견훤도성과 전주 읍성의 위치

출처 : 조성욱, 2025a:205.

## 2. 전라도의 중심지와 조선 왕실 본향(고려 ~조선시대)

### 1) 고려시대(936년~1392년): 전북에서 전라도로 지방행정 범위 확대

936년 후백제 멸망 이후인 고려시대 전주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983년(성종 2년) 전주를 12목(牧)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1018년 5도 양계로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강남도(전주)와 해양도(나주)를 합친 전라도의 주도(州道)가 되면서,<sup>2)</sup> 전북의 범위를 넘어 전라도 전체의 행정중심지로 성장한 것이다.

고려말인 1388년에 축성된 전주 읍성의 주향이 남향을 하고 있다는 점은 건지산(乾止山)을 주산(主山)으로 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주의 주향이 서향에서 남향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주 읍성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1392년)하기 이전에 축조되었기 때문에, 전주이씨의 시조인 이한(李翰)으로 인하여 건지산이 주산으로 설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조경단, 1899년 조성). 전주의 지형 조건에서 북서 방향으로 방리구획을 했다는 것은 가능한 평탄지 중심으로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우연히 건지산과 방향이 맞은 것인지, 건지산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주향이 결정된 이후 북서방향 쪽에 위치하는 건지산을 찾았을 가능성도 있다(조성욱, 2025a). 전주는 오랜 시간에 걸쳐 북쪽의 허함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비보풍수가 이루어졌는데, 북쪽 방면에 금암동의 거북바위, 고토성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2개의 성벽(장제, 長堤), 덕진연못, 지명으로서 가련산(可連山)과 곤지산(坤地山) 그리고 이후에 조성된 숲정이, 진복사, 전주읍성 내의 조산과 현무지 등이 있다.

주산인 건지산에는 여러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장군봉(119.3m)이고, 1899년에

조성된 조경단(肇慶壇)의 뒷산인 왕자봉(67.2m), 그 외에 건지산(99.4m), 천마산(95.3m)과 조개바위(92.6m) 등의 봉우리가 건지산의 산체(山体)에 위치한다. 어느 봉우리를 건지산이라고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러한 산과 봉우리의 관계는 덕유산의 경우 가장 높은 봉우리인 향적봉(1,614m)을 덕유산으로 지칭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산체를 ‘산’으로 인식하고, 그 산체 중의 최고봉을 대표 봉우리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지산의 경우 건지산이 최고봉은 아니다.

고려시대인 1018년 이후 전주는 통일신라시대 때 보다 더 큰 지역 즉, 전북 범위에서 전라도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 중심성이 더 강화된 도시로 성장했다. 전주는 1378년에 왜구에 의해 불에 탔고, 1380년 황산대첩에서 승리한 이성계가 방문했으며, 1388년 석성인 전주 읍성이 축성되었다. 만일 그 이전 평탄지역에 읍성이 있었다면, 1388년의 전주 읍성보다는 작은 규모였고, 토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표 2).

### 2) 조선시대(1392년~1907년): 조선 왕실의 본향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전주 읍성의 가장 큰 변화는 경기전(慶基殿, 이성계의 어진, 1410년)의 설치이다. 1388년에 전주 읍성을 축조할 당시에는 이성계의 어진을 보관하는 경기전을 고려하지는 못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경기전을 설치하면서 전주 읍성의 규모가 확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이경찬, 2004). 차후에 축조된 경기전이 기존 성내에 설치되었을까, 아니면 경기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주 읍성을 확장했을까의 의문이 생긴다.

전주 읍성은 정방형이 아니고, 남문과 서문 사이의 성벽이 직교하지 않고 곡선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주천에 의한 지형조건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풍남문에서 경기전 끝점까지가 330m, 풍남문에서 서문으로 이어지는 성벽 중 직선 부분은 200m라는 차이점이 있어서, 전주 읍성

표 2 1182년 기두·죽동의 난과 1378년 왜구에 의한 전주 파괴 내용

|                                                                                                                                                                                       |
|---------------------------------------------------------------------------------------------------------------------------------------------------------------------------------------|
| <p>1182년(고려 명종 12) 기두·죽동의 난(『고려사절요』 권12).</p> <p>원문 : [全州旗頭竹同等, 作亂, --- 發道內兵討之, 賊, 閉城固守.]</p> <p>해석 : 전주(全州)에서 기두(旗頭) 죽동(竹同) 등이 난을 일으켰다. -- 도내의 군병을 동원하여 토벌하니, 적들이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p> |
| <p>1378년(우왕 4년 10월) 왜구에 의한 전주 화재(『고려사절요』 권30).</p> <p>원문 : [冬十月, 倭寇林州, 又屠燒全州.]</p> <p>해석 : 겨울 10월에 왜적이 임주(林州)를 침범하고, 또 전주를 도륙하고 불태웠다.</p>                                             |

출처 : 고려사절요, 권12, 권30.

의 동벽(경기전 쪽)을 100m 정도 더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풍남문과 객사를 중심축으로 하는 성내 구조에서 동서가 대칭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확대보다는 기존 성내에서 경기전의 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경기전이 전주 읍성의 남동부에 위치한 것은 승암산-발산-오목대-경기전으로 이어지는 주맥의 흐름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권선정, 2021; 전종한, 2021). 따라서 경기전으로 인하여 전주 읍성의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주맥의 흐름을 고려하여 기존의 성내에서 남동부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734년 조현명에 의해서 전주성의 수축이 이루어졌으나, 성의 규모에서는 큰 변화가 없이(2,249보에서 2,618보로 확장) 4대문의 수축, 치성(雉城) 5개 추가(11개), 웅성은 4개에서 1개(북문)로 감소, 여장(여첩=女堞)을 설치하는 정도였다(유재춘, 2006). 1388년 전주 읍성은 행정관청인 전라감영(監營)을 중심으로 성을 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있던 견훤성을 포함하지 않고, 평탄지에만 별도로 성을 축조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산지

성이었던 견훤성에 비해서는 작으며, 전주읍성 축성 이후 견훤성은 폐허가 되었다(표 3, 그림 4).

### 3. 전주읍성 해체와 지리적 범위 확장 (1907년~현재)

#### 1) 1907년~1945년: 전주 읍성의 해체와 전주천의 통제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전주 읍성이 해체되고 성터는 도로가 되었다(장명수, 1994). 즉, 동쪽 성벽은 경기전길과 현무2길, 남쪽은 태조로, 서쪽은 풍남문2길, 전라감영2길, 전주객사2길이 되었고, 북쪽 성벽은 전주객사3길과 4길, 현무1길이 되었다. 더 큰 변화는 기존의 전주읍성 내부 객사를 중심으로 한 T자형 도로 구조에서, 남북 중심축(객사-풍남문)과 동쪽 성벽 사이에 팔달로라는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다는 점이다. 팔달로 개설은 전주의 기본 도시 구조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큰 변화였다(장명수, 1994; 김현숙, 2004).

이 시기 전주천을 중심으로 남쪽인 서학동과 완산동,

표 3. 견훤도성과 전주 읍성의 비교

| 비교조건 | 지형조건         | 방향  | 기존 산지 | 축조시기  | 축조주체   | 지형조건      | 성의 형태      |
|------|--------------|-----|-------|-------|--------|-----------|------------|
| 견훤도성 | 동고서저<br>남고북저 | 북서향 | 승암산   | 900년  | 견훤 후백제 | 산지<br>구릉지 | 산성+<br>평지성 |
| 전주읍성 | 평지<br>동고서저   | 남향  | 건지산   | 1388년 | 고려     | 평지        | 평지성        |



그림 4. 조선시대 전주 읍성과 주요시설

그리고 북쪽인 교동, 다가동, 태평동, 진북동의 범람이 계속되었다(그림 5). 1936년 대홍수 이후 인공제방을 축조하고(한벽루~남대천변~태평동 구간), 곡류하던 전주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산각(山脚)을 폭파하여 하천을 직선화했다(곤지산, 도토리굴 일대, 진북사 일대 등). 그 결과 남대천(한벽당~다가산 구간) 유역은 주기적인 전주천의 홍수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었고, 전주천변의 개발이 확대되었다(서울은 1925년 홍수 이후 한강제방 축조). 그러나 인공제방은 전주천의 중류 지역에 한정되었고, 하류 지역(진북동, 금암동, 덕진동, 서신동)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

또한 전주 시내를 통과했던 전라선의 구 철도선(동산역-덕진역-전주역-신리역)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노송천의 흐름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구 한진고속~전주시청~오목대), 대부분의 노선은 노송천의 범람으로부터 안정적인 동부 구릉지 쪽을 통과하고 있으며, 관선교에서 노송천과 만난다. 철도 노선은 노송동의 구릉지와 서쪽 평탄지의 경계가 되기도 하는데, 1981년 우아동으로 철도를 이설한 이후 자동차 도로인 기린로가 개설되었다.

또한 완주군 조촌면에 속해 있던 덕진동이 전주시로 편입됨으로써(1940년), 전주 지역의 지리적 범위는 모래내 유역인 검암바위와 거북바위에서, 더 북서쪽으로 가련산과 전주천(하류)까지 확장되었다.

## 2) 1945년 이후: 전주천 하류 지역과 구릉지 개발

전주 구시가지(전주읍성 지역)를 통과하는 전주천(한벽루~다가산~진북사)은 전주천의 중류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은 1945년 이전에 직선화와 인공제방의 축조로 홍수로부터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전주천과 모래내가 만나는 지점(진북동)에서부터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전주천의 하류 부분은 1960년대 이후 범람원 지역이었던 모래내와 노송천이 만나는 지역인 진밭들(진북동), 전주천과 모래내가 만나는 지역인 장제들(진북동), 전주천의 범람 지역인 용산들(금암동, 덕진동)에 인공제방이 축조되어 주택지로 개발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더 하류 지역인 전주천과 삼천이 만나는 고사평(서신동), 2000년대 이후에는 가리내들(덕진동)과 삼천의 범람원 지역이었던 서부 신시가지(마전들)까지 확장되었다. 즉, 전주천을 따라서 하류로 인공제방을 연장하여 농경지로 이용되었던 범람원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통하여 주거지역으로 변화시켰다.

전주의 주거지 확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1981년 전라선 철도와 전주역의 이전(서노송동에서 우아3가동으로)과 함께 건설된 전주역-종합경기장-평화동으로 이어지는 외곽도로의 개설(백제대로)과 구릉지 개발(6지구)에 의해 인후동, 아중리, 중화산동, 서곡지구가 개발된 것이다. 이것은 북서 방향의 전주천 하류지역으로의 개발과는 달리 동서 지역으로의 확장이라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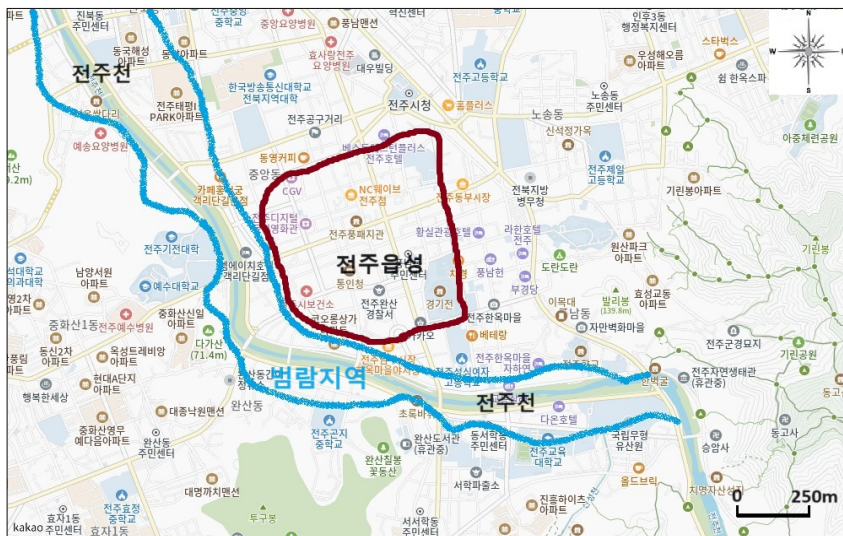


그림 5. 전주천의 범람 범위(1936년 8월 15일 대홍수)

출처 : 조성욱, 2025a:207.



과 하천 유역이 아닌 구릉지 개발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전주천의 하천 연변이 아니라 구릉지역이라는 점, 전주천의 수계를 넘어 아중천 수계로 확장되었다는 점, 서쪽으로 서산을 넘어 삼천 수계의 개발(중화산동)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전주천 중심의 지리적 개념을 벗어난 지역개발이라는 특징이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삼천을 넘어 삼천 유역 개발(마전들,

서부 신시가지)이 이루어졌으며, 전주의 서쪽 경계선으로 인식되었던 황방산(216.6m)을 넘어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북부의 35사단이 위치했던 송천동 지역에 군부대의 이전과 함께 주거지역인 에코시티(eco-city)가 개발됨으로써, 전주 지역의 지리적 범위는 가련산과 전주천 하류(덕진동)에서, 서산과 삼천 그리고 황방산을 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60년대 이후 하천(전주천, 삼천)을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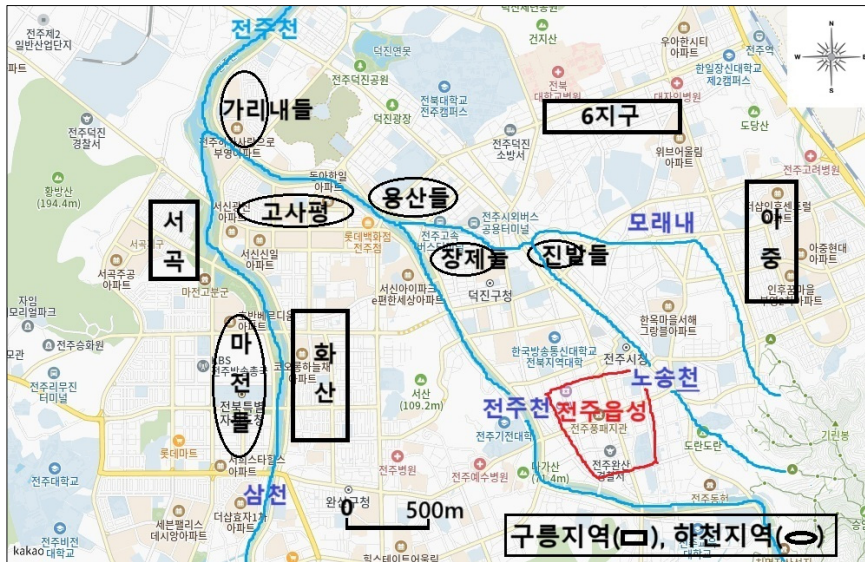


그림 6. 1960년대 이후 전주천변과 구릉지역의 개발

표 4. 시기별 전주시의 발전 과정

| 시기별              | 중심 지역 및 관련 사항                                                                                                                                                              |
|------------------|----------------------------------------------------------------------------------------------------------------------------------------------------------------------------|
| 1.1. 마한~백제시대     | · 완산 시대(은송리, 곤지리) : 북향, 앞에 전주천, 배후에 완산, 지명 완산, 자연 취락 형성, 전주천의 불안정, 완산칠봉 약수터<br>· 자만동 : 남향, 배후에 발산, 쌍시암, 낙수정 및 승암산과 연결, 한벽당                                                 |
| 1.2. 통일신라시대      | · 노송동(구릉지) : 주거지역, 밭농사 지역<br>· 중앙동(평탄지) : 주산 건지산(남쪽에 곤지산),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행정 중심지역, 방리구획 실시                                                                                  |
| 1.3. 후백제 시대      | · 노송동(도성과 왕궁) : 서향, 노송천을 해자로 이용, 승암산 계곡으로 확대(동고산성), 시가지와 경작지는 중앙동 평지 지역, 노송천과 모래내가 경계                                                                                      |
| 2.1. 고려시대        | · 중앙동(평탄지) : 남향(주산 건지산), 전북에서 전라도로 행정구역 확대(1018), 왜구의 침입(1378), 이성계 방문(1380), 전주 부성 축조(1388)                                                                               |
| 2.2. 조선시대        | · 중앙동(평탄지) : 전주 부성 중심, 경기전(1410) 축조, 조명현의 전주성 수축(1734), 방어체계 구축(1800년대), 풍수지리(북쪽 방면 비보, 이서구), 조경단 조성(1899), 오목대와 이목대(1900)                                                 |
| 3.1. 1907년~1945년 | · 전주 부성 해체(1907~1911), 태평로와 팔달로 조성, 한벽루 ~ 진복사 구간 전주천 통제(인공제방, 직선화), 콘크리트 교량 건설(1922), 덕진동 편입(1940)                                                                         |
| 3.2. 1945년 이후    | · 종적 확장(북서 방향) : 전주천을 따라 북서쪽의 하류 개발<br>· 횡적 확장(동서 방향) : 1980년대 이후 동서 구릉지 개발<br>· 지리적 범위 확대 : 동(아중천), 서(전주천, 서산), 남(승암산, 남고산), 북(모래내) ⇨ 동(소양천), 서(천잠산), 남(모악산), 북(만경강)으로 확대 |

진발들(노송천+모래내), 장제들(전주천+모래내), 용산들(전주천), 고사평(전주천+삼천), 마전들(삼천), 하가들(전주천 하류)의 개발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북쪽의 전미동, 팔복동, 고랑동 지역만 공업지역과 농경지로 남아 있다. 1960년대 전주천을 따라 하류 지역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진 시기를 종적 확장시기(북서 방향)라고 한다면, 1980년대 이후 구릉 지역을 개발한 시기를 횡적 확장시기(동서 방향)라고 할 수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전주로 인식되었던 지리적 범위를 넘어서서 삼천(서부 신시가지), 건지산(에코시티 지역), 황방산(혁신도시 지역) 지역으로 확장이 이루어졌다(그림 6, 표 4).

### III. 전주시 중심 지역과 지리적 범위 변화 과정의 특징

#### 1. 중심 지역의 변화

전주 지역에서의 중심 지역의 변화를 시대별로 추정해 보면, 마한 및 백제시대 때는 배산임수의 지형으로 산지의 임산물과 하천의 범람을 피하면서 거주가 가능했던 완산과 전주천 사이의 은송리 및 곤지리 일대(현 완산초) 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구 증가와 함께 노송동 구릉 지역으로 거주 지역을 확대해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당시 전주읍성 지역(현 중앙동과 풍남동 지역)은 하천의 범람 등으로 안정적인 인간 거주는 어려웠고, 부분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 지방행정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외부로부터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평탄지였던 전주읍성 지역이 전주천의 범람으로부터 차츰 안정화되면

서 농경지로 개척되고, 취락이 들어서면서 시가 지역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행정기관들도 입지하면서 중심 지역이 노송동의 구릉 지역에서 평탄지로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표 5).

그러나 견훤이 전주에 후백제의 도읍을 정하면서 도성과 궁성 축조가 필요했고, 당시는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방위에 유리한 구릉지와 산지를 연결하는 견훤도성이 축조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경작이 이루어지는 평탄지와 행정기관과 군사시설이 집중된 구릉 지역으로 분리되었고, 노송천이 두 지역의 구분선이 되었다.

후백제의 멸망과 함께 한 국가의 수도에서 다시 지방행정 중심지가 되면서 구릉지보다는 농업에 유리한 평탄지에 인구가 집중되었다. 따라서 산지와 구릉지에 축조되었던 견훤도성 지역은 쇠퇴하고, 평탄지인 전주읍성 지역이 중심 지역이 되었다. 이후 고려시대인 1018년 전라도의 주치(州治)가 되면서 행정기능과 인구 그리고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었고, 1388년에는 인구가 집중된 평탄지에 전주 읍성이 축조되었다(표 6).

1392년 조선왕조의 탄생과 함께 왕실의 본향이 되어, 1410년 태조어진을 모시는 경기전을 축조하는 등 도시의 위상이 상승했다. 1734년 조현명에 의해 전주성의 수축이 이루어졌지만, 크기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1907년 전주 읍성이 해체되었지만, 전주읍성 지역이었던 중앙동과 풍남동 지역은 1980년대까지 중심 지역으로의 역할이 이어졌다(그림 7).

중심 지역에서는 1907년 전주 읍성의 해체, 1931년 전주읍으로 승격, 1935년 전주부와 완주군의 분리가 이루어졌고, 1940년에는 북쪽의 완주군 이동면 전체 지역(현 금암동, 인후동, 서신동, 중화산동)과 조촌면의 덕진동 지

표 5. 시대별 전주의 중심지 변화

| 시대별    | 백제시대       | 통일신라시대            | 후백제시대        | 고려시대                 | 조선시대              |
|--------|------------|-------------------|--------------|----------------------|-------------------|
| 연도별    | ~685       | 685~900           | 900~936      | 936~1392             | 1392~1910         |
| 전주의 위상 | 완산         | 전주(9주)            | 후백제의 수도      | 1018년<br>전라도의 주치(州治) | 전라도의 주치           |
| 지리적 범위 | 전주 지역      | 전북 지역             | 전라도, 충청도 지역  | 전라남북도 지역             | 전라남북도 지역          |
| 중심 지역  | 은송리<br>노송동 | 평탄지<br>(중앙동, 풍남동) | 구릉지<br>(노송동) | 평탄지<br>(중앙동, 풍남동)    | 평탄지<br>(중앙동, 풍남동) |
| 성 격    | -          | -                 | 견훤도성         | 전주읍성(1388)           | 전주읍성              |



역이 전주부로 편입되었다(전주문화원, 2001:84). 이후 1957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전주시역이 급격하게 확대되어, 고려시대 이후 중심 지역이었던 기존 전주읍성 지역은 구도심 지역이 되었고, 전주천을 따라 이루어진 지역개발에 따라 북서 방향으로 주거지가 확대해 갔다. 1980년대에는 전주천변이 아닌 동서 방향의 구릉지역 개발이 이루어져 북서 방향(진북동, 금암동, 덕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도시 개발이 동서 방향(동부 우아동, 서부 중화산동)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전주천을 넘어 서쪽 방향으로 확대되어 삼천 유역까지(2005년 전북도청 이전), 2010년대에는 전주 지역의 서쪽 한계로 인식되던 황방산을 넘어 혁신도시 지역(만성동, 장동, 중동)으로 확대되었다. 전주시는 1980년대 이후 전주읍성 지역 중심(중앙동과 풍남동)의 구도심 지역을 벗어났으며, 단핵 도시에서 다핵심 도시로 도시구조가 변화하고 도청 이전 등과 같이 도시 기능이 분산되었다.

## 2. 지리적 범위의 변화

전주 지역으로 인식되는 지리적 범위는 조선시대까지는 동쪽으로 기린봉 산줄기를 따라 반대산까지의 노송동 구릉 지역, 북쪽은 모래내, 서쪽은 전주천과 서산, 남쪽으로는 승암산과 기린봉 그리고 완산과 남고산까지의 지역이었다. 그러나 1907년 전주 읍성의 해체와 전군도로와 팔달로의 개설, 1940년 덕진동의 편입으로 북서쪽 방향으로 확장되어 모래내를 넘어 덕진연못과 가련산의 전주천 하류에까지 이르렀다. 1940년대 이전 전주의 중심 지역은 행정구역상 전주 읍성을 중심으로 부동면, 부서면, 부남면, 부북면 지역이었으나, 이후 서쪽으로는 완주군 이동면 지역(전주천 서부지역; 서신동과 중화산동), 북쪽으로는 조촌면 지역(전주천 하류의 동쪽 지역; 덕진동)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1957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전주시의 지리적 범위는 급격하게 확장되었는데, 북쪽으로 전주천을 넘어 팔복동이 전주로 편입되었으며, 남쪽으로는 완산(장승백이)을 넘어 평화동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동쪽으로는 아중천 유역의 우아동이 편입되었다(표 7, 그림 8).

1957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동쪽은 아중천을 넘어 소양천(호성동, 우아동)까지, 남쪽은 좁은목과 완산을 넘어 대성동으로 확장되었고, 서쪽은 삼천 유역(효자동)까지, 북쪽은 전주천을 넘어 확장되었다(송천동, 팔복동). 1980년대 전주의 이전(우아동)과 함께 동서 방향의 구릉 지역이 개발되었으며(인후동, 중화산동), 이후 북서쪽은 전주천을 따라 고사들(서신동), 하가지구(덕진동)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1987년 조촌읍의 전주시 편입과 1994년 조촌동의 확장(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일부 편입)에 의해서 전주시의 지리적 범위는 전주천을 넘어 만경강까지 확장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삼천 유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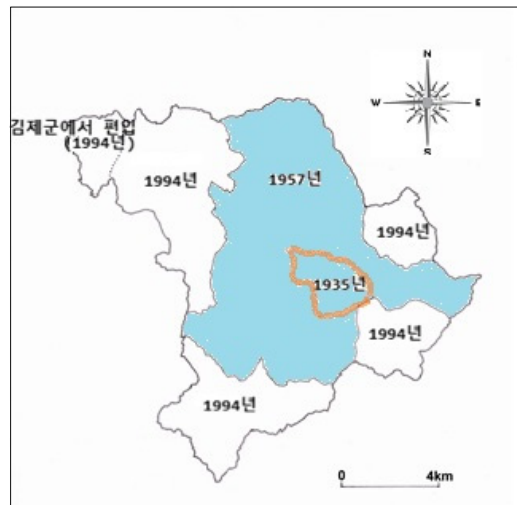


그림 8. 전주시의 시역 변화(3개 시점)

출처 : 조성욱, 2017:278.

표 7. 전주시 행정구역의 확장 과정

| 연도별      | 전주시 편입 지역                                                                                 |
|----------|-------------------------------------------------------------------------------------------|
| 1945년 이전 | 부동면(풍남동), 부서면(중앙동, 태평동), 부남면(완산동, 서학동), 부북면(노송동, 진북동), 이동면(금암동, 인후동, 서신동, 중화산동), 조촌면(덕진동) |
| 1957년    | 동쪽(호성동, 우아동), 서쪽(효자동), 남쪽(평화동, 삼천동, 동서학동), 북쪽(송천동, 팔복동) 확장                                |
| 이 후      | 1987년(완주군 조촌읍 편입), 1989년(우아동, 삼천동, 평화동), 1990년(효자동), 1994년(조촌동) 확대 및 편입                   |

자료 : 전주문화원, 2001.



표 8. 전주 지역의 지리적 범위 변화

| 시기별/방향별     | 동쪽  | 서쪽     | 남쪽         | 북쪽      |
|-------------|-----|--------|------------|---------|
| 조선시대        | 아중천 | 전주천    | 기린봉/승암산/완산 | 모래내     |
| 1907년~1957년 | 아중천 | 전주천    | 기린봉/승암산/완산 | 전주천(하류) |
| 1957년 이후    | 소양천 | 삼천/황방산 | 고덕산/모악산    | 고산천     |
| 2020년 현재    | 소양천 | 천잠산    | 모악산        | 만경강     |

표 9. 시기별 전주시의 확장 방향

| 시기별         | 확장 방향                                        |
|-------------|----------------------------------------------|
| 조선시대 이전     | 구도심 지역(노송동, 중앙동, 풍남동), 남대천 이남 지역(서학동, 완산동)   |
| 1907년~1957년 | 전주천을 따라 하류로 확장(진북동, 금암동, 덕진동), 북서 방향         |
| 1957년~2000년 | 전주천 하류(북부), 완산(남부), 삼천(서부)을 넘어 확장, 북서 및 동서방향 |
| 2000년 이후    | 서부신시가지(서부), 혁신도시(북서부), 에코시티(북부) 개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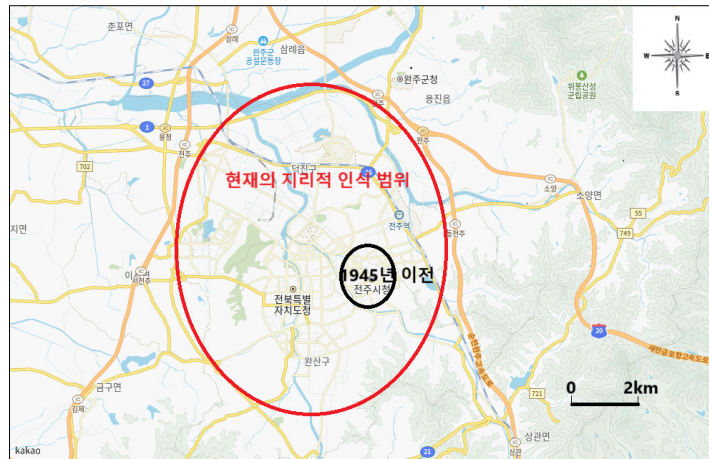


그림 9. 전주의 지리적 인식 범위 변화(1945년 이전과 현재)

서부신시가지 개발(2005년 도청 이전)과 전주 지역의 가  
장 외곽으로 인식되던 황방산을 넘어서는(혁신도시, 2010  
년대) 지리적 범위 확장이 이루어졌다(표 8, 표 9, 그림 9).

####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전주의 발전 과정을 중심지 변화와 지리  
적 범위 변화의 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  
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전주의 중심 지  
역은 마한 및 백제시대에는 터는 작지만 배산임수의 지형  
으로 산지의 입산물과 하천의 범람을 피하면서 거주가  
가능했던 은송리 그리고 이후에는 인구 증가와 함께 노송

동 구릉지역으로 거주 지역을 확대해 갔을 것으로 추정된  
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지방행정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평  
탄지인 전주읍성 지역(중앙동과 풍남동)이 새로운 중심  
지로 성장했으며, 후백제의 수도가 되면서 군사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구릉지와 산지를 연결하는 노송동 지역에  
견훤도성이 축조되었다. 그리고 후백제의 멸망과 함께  
중심지가 다시 평탄지로 이전하였고, 1388년에는 이곳에  
전주 읍성이 축조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의 왕실  
본향으로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1410년 전주 읍성 내에  
경기전을 축조하였다. 1907년 전주 읍성이 해체되었지  
만, 전주의 중심 지역으로서 읍성 지역의 역할은 1980년  
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는 다핵심 도시로 변화했다.

둘째, 조선시대까지 전주 지역으로 인식되었던 지리

적 범위는 동쪽으로는 기린봉에서 반대산까지의 산줄기, 서쪽으로는 전주천, 북쪽으로는 모래내, 남쪽으로는 기린봉과 승암산 일대였다. 1940년대 이후에는 북쪽 방향으로 모래내를 넘어 덕진언못 및 가련산(덕진동)까지, 서쪽은 전주천을 넘어 중화산동 지역과 서신동 지역까지, 동쪽은 기린봉 산줄기를 넘어 아중천까지 확대되었으나, 남쪽은 기린봉과 승암산으로 막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셋째, 전주의 지리적 범위가 급격하게 확장된 것은 1957년 행정구역 확장 시기인데, 북쪽으로 전주천(하류)을 넘어 팔복동이 전주로 편입되었으며, 남쪽으로는 완산을 넘어 평화동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동쪽으로는 소양천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이후 1960년대부터는 전주천을 따라 북서 방향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구릉지를 개발하여 동서로 확장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그동안 전주의 외곽 경계로 인식되었던 삼천과 황방산을 넘어 마전들과 혁신도시가 개발되었다. 2000년대 이후 전주시의 경계는 동쪽은 소양천, 서쪽은 천잠산, 남쪽은 모악산, 북쪽은 만경강으로 확장되었다.

이상과 같이 전주 지역에서 중심 지역은 노송동의 구릉 지역과 전주읍성의 평탄지역 사이를 이동하다가(통일신라~후백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전주읍성 지역이 중심 지역이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전주읍성 지역을 벗어나 다핵심 도시로 변화했다. 지리적 범위는 1957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전주의 외곽 경계로 생각했었던 삼천과 황방산을 넘어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었다. 1945년을 기준으로 전주의 지리적 범위는 아중천(동), 서산(서), 승암산(남), 전주천(북)에서, 2020년에는 소양천(동), 천잠산(서), 모악산(남), 만경강(북)으로 확장되었다.

## 註

- 1) 685년 9주 5소경의 행정구역으로 완산주(完山州)가 설치되었는데, 이전인 672년에 군사기구인 완산주서(完山州誓)가 설치되었다는 「삼국사기」 기록의 시점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 672년에 설치된 5개 주서는 청주서(진주), 완산주서(전주), 한산주서(경주), 우수주서(춘천), 하서주서(강릉)임.
- 2)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는 후백제가 멸망한 936년

에 전주에 처음 설치되었으나, 이후 고부, 영암 등지로 이전되었다가 폐지된 행정기구임.

## 참고문헌

- 권선정, 2021, “‘왕실본향’으로서 전주의 장소성과 풍수적 배치,” 안팎너머 편, 「전주읍지」, 전주: 신아출판사, 62-93.
- 김근영, 2018, “백제의 논산 지역 지배와 동방성,” 한국고대사연구, 90, 45-83.
- 김주성, 2006, “고대 전주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왔을까,” 전주역사박물관 편, 「전주학 서설」, 55-84.
- 김현숙, 2004, “지도를 통해 본 전주의 근현대 공간구조 변화,” 전주역사박물관 편,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전주: 신아출판사, 163-200.
- 유재춘, 2006, “18세기 全州府城 축성기록 ‘築城啓草’ 연구,” 史學研究, 81, 39-85.
- 이경찬, 2004, “전주의 도시형성과정과 고대·중세의 도시 형태,” 전주역사박물관 편,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전주: 신아출판사, 45-103.
- 이경찬, 2024, “지도와 유적으로 보는 전주 후백제 왕도 공간구조,” 전북학연구, 13, 103-140.
- 장명수, 1994,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서울: 학연문화사.
- 전주문화원, 2001, 「지명으로 보는 전주 백년」, 전주: 신아출판사.
- 전주역사박물관, 2015, 「꽃심을 지닌 땅 전주(1. 역사문화 편)」, 성남: 북코리아.
- 전영래, 2001, “후백제와 전주,” 전북전통문화연구소, 「후백제 건원정권과 전주」, 서울: 도서출판 주류성, 11-50.
- 전종한, 2021, “전주읍치, 상징적 경관과 장소로 ‘도읍都邑’을 담아내다,” 안팎너머 편, 「전주읍지」, 전주: 신아출판사, 12-58.
- 조성욱, 2017, “전주시의 상대적 저성장에 대한 원인 고찰: 광주 및 대전 광역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6(2), 275-289.
- 조성욱, 2025a, “전주 지역 역사 전개에서 전주천의 역할에 대한 논의,” 한국지리학회지, 14(2), 195-209.
- 조성욱, 2025b, “전주의 중심지 변화와 건원도성 및 궁성의 위치 추정,” 한국지리학회지, 14(3), 373-388.

최범호, 2016, “『삼국사기』 완산주(完山州) 관련 기록의 재검토,” 전북사학, 48, 5-30.

최흥선, 2016, “후백제 도성 신자료 소개,” 東垣學術論文集, 17, 76-91.

「三國史記(삼국사기)」(卷40, 雜誌9, 職官下, 武官, 五州誓).

「高麗史節要(고려사절요)」(卷12, 卷30).

「東國李相國集(동국이상국집)」, 卷23, 李奎報(이규보), 1241, 南行月日記, 한국고전종합DB.

교신 : 조성욱,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chossww@jbnu.ac.kr)

Correspondence: Sungwook Cho, 54896,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nbuk-do,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chossww@jbnu.ac.kr)

투고접수일: 2026년 5월 6일

심사완료일: 2026년 5월 18일

게재확정일: 2026년 5월 20일